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본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1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 당 자	• 기획팀장 이규석 ☎440-2131 • 담당자 황선조 ☎440-213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실질적 성과 창출에 전 간부들의 헌신 강조

- 올해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실·국 및 공사·공단의 역점 추진사업 점검 -
- 유 시장, 중장기·단기로 나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현안 해결에 최선 당부-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인천광역시는 3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3년 3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각 실·국의 역점 추진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직속기관·사업소 기관장을 비롯해 군·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실·국 역점 추진사업은 인천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공사·공단 기관장 등이 책임을 갖고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거나 해결하고자 목표를 세운 과제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보유한 기반시설과 잠재력을 더욱 확대해 세계적인 도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확고한 실현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가치 재조명, ▲자원순환센터 확충, ▲반도체 패키징 메카 조성, ▲섬주민을 위한 대형여객선 도입,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실·국장 등은 각 사업에 대한 올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한편, 시는 올해 연말에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실·국의 역점 추진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보고한 역점과제는 대부분 많은 외부 기관과 이해당사자가 얹혀 있는 복잡한 과제이지만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나눠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각 2023년 역점사업에 대해 실·국장이 시장이라는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참고 > 확대간부회의 자료